

2024.11.28. No.14

통상 이슈브리프

한·호주 FTA 10주년 평가와 시사점

이정아 수석연구원(02-6000-5954, ja.lee@kita.or.kr)

-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가진 호주와의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무역은 **연평균 5.7% 증가**
 - 한국의 對호주 수출은 석유제품과 수송기기, 對호주 수입은 광물과 농림수산물에 높은 비중을 차지
- 한·호주 FTA는 안정적인 시장 확보를 통해 공급망 확보의 기반을 제공
 - 핵심 광물과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은 첨단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안보를 위해 필수적
 - 주요국의 자국중심주의 강화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서 기회 창출 및 리스크 완화에도 기여
- 핵심 광물 중심의 전통적 협력 외에도 신통상 분야 협력을 통해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체제를 강화할 필요

I 한·호주 FTA 협정 추진 배경 및 체결 효과

- 한국과 호주는 경제적 상호보완성, 무역·투자 확대,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FTA를 체결
 - 한·호주 FTA는 자원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와 호주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의¹⁾
 - 호주가 체결한 18개 FTA 중 다수가 ASEAN 국가들로 호주 시장 내 아시아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
 - 호주는 세계 12위 경제 대국('22년 기준)으로 높은 구매력을 가진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과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갖고 있는 무역 파트너²⁾
 - '23년 호주의 명목 GDP는 1조 7천23억 달러, 한국은 1조 6천733억 달러(13위)이며, 호주의 1인당 GDP(구매력 평가 기준 조정치)는 세계 평균의 335%에 해당³⁾
 - 호주는 농축산업과 광업 등 1차 산업에서 강점을 갖고 있으나 제조업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해 한국의 고부가 공산품을 수출하기에 유망한 시장⁴⁾

1) 산업통상자원부, “한호주 FTA”, <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au/>. (2024.11.15.검색).

2)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한호주 FTA”,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10010&pageFlag=&sitePage=>. (2024.11.15.검색).

3) Trading Economics, “Australia GDP per capita PPP”, <https://tradingeconomics.com/australia/gdp-per-capita-ppp>. (2024.11.15.검색).

□ 한·호주 무역 규모는 FTA 발효 이후 연평균 5.7% 증가, 호주 시장점유율도 증가해 일본을 제치고 3위를 차지

○ '23년 수출은 발효 전 대비 72.8% 증가(연평균 6.3%)하고, 수입은 발효 전 대비 60.8% 증가(연평균 5.4%)

<표1. 대호주 무역 현황>

(단위: 억 달러)

| | 2014년 (발효전*)(a) | 2015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b) | 2024년 1~10월 | 연평균 증감률 | 발효전 대비 23년 증감률 |
|----|--------------------|-------|-------|-------|-------|--------------|----------------|------------|-------------------|
| 무역 | 307 | 272 | 249 | 427 | 637 | 506 | 386 | 5.7% | 64.8% |
| 수출 | 103 | 108 | 62 | 98 | 188 | 178 | 133 | 6.3% | 728.8% |
| 수입 | 204 | 164 | 187 | 329 | 449 | 328 | 253 | 5.4% | 60.8% |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한·호주 FTA는 '14.12.12. 발효

○ 호주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2년 이후 상승하며 일본을 추월해 중국, 미국에 이어 호주의 3대 수입국으로 등극

- 한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들 중 호주에서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많이 상승해, FTA 발효 전인 '14년 4.3%에서 '23년 6.4%로 2.1%p 상승⁵⁾

<표2. 호주 수입시장 내 한국 점유율 추이>

(단위: %, %p)

| 순위 | 국가 | 2014년 (A) | 2015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B) | 2024년 1~8월 | (B)-(A) |
|----|----|--------------|-------|-------|-------|-------|--------------|---------------|---------|
| 1 | 중국 | 18.6% | 23.1% | 28.6% | 27.5% | 26.6% | 25.1% | 24.5% | 6.5%p |
| 2 | 미국 | 9.6% | 11.1% | 11.8% | 10.1% | 10.1% | 11.1% | 11.9% | 1.5%p |
| 3 | 한국 | 4.3% | 5.4% | 3.0% | 3.7% | 6.3% | 6.4% | 5.9% | 2.1%p |
| 4 | 일본 | 6.3% | 7.4% | 6.0% | 6.0% | 5.9% | 6.3% | 5.7% | 0.0%p |
| 5 | 태국 | 3.9% | 5.1% | 4.8% | 4.5% | 4.1% | 4.6% | 4.6% | 0.6%p |

자료: 한국무역협회, 순위는 2024년 1~8월 기준

□ 對호주 수출은 석유제품과 수송기기, 對호주 수입은 천연가스, 유연탄 등 광물과 농림수산물 비중을 차지

○ '23년 對호주 석유제품(경유, 휘발유, 제트유 및 등유) 수출은 전체 수출의 57.6%, 수송기기(승용차, 기타자동차, 철도차량, 전기자동차, 화물자동차)는 20.5%를 차지

- (석유제품) 호주는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부분 즉시 철폐했으며*, 일부 품목은 5년 내 철폐(관세율 0% 또는 5%)

* 휘발유, 경유 등 주요 수출품목은 무관세 품목으로 한·호주 FTA의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⁶⁾

- (수송기기) 호주는 가솔린승용차(1500-3000CC, 1000-1500CC), 디젤자동차(1500-2500CC), 디젤화물자동차(5

4) 오수현 외(2013),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의 현황과 경제적 의미”, 지역경제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 Ibid. '23년 호주의 주요 5위 수출국은 중국(1843억 AUD), 일본(547.9억 AUD), 한국(306.1억 AUD), 인도(216억 AUD), 미국(204억 AUD) 순.

6) Ibid.

톤이하) 등 2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다른 수송기기 품목은 3년 내 철폐(관세율5%)

- '22년 기준 호주는 세계에서 9번째(208억 달러)로 큰 자동차 수입국이고, 한국(31.5억 달러)과 일본(66.4억 달러)이 그 뒤를 차지⁷⁾

<표3. 대호주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 | | | | 순위 | 수입 | | | | |
|--------|-------|-------|-------------|---------|----|-----------|-------|-------|-------------|---------|
| 품목 | 2014년 | 2023년 | 2024년 1~10월 | 연평균 증감률 | | 품목 | 2014년 | 2023년 | 2024년 1~10월 | 연평균 증감률 |
| 경유 | 2471 | 6,783 | 4,957 | 11.9% | 1 | 천연가스 | 618 | 8,905 | 5,778 | 34.5% |
| 승용차 | 1776 | 2,841 | 1,983 | 5.4% | 2 | 유연탄 | 5026 | 7,184 | 4,807 | 4.0% |
| 휘발유 | 919 | 1,619 | 1,227 | 6.5% | 3 | 철광 | 5629 | 5,485 | 4,695 | -0.3% |
| 제트유및등유 | 709 | 1,844 | 1,215 | 11.2% | 4 | 원유 | 2172 | 2,030 | 1,816 | -0.7% |
| 기타자동차 | 2 | 127 | 566 | 58.6% | 5 | 가축육류 | 984 | 1,639 | 1,501 | 5.8% |
| 축전지 | 87 | 178 | 186 | 8.3% | 6 | 금 | 212 | 503 | 1,023 | 10.1% |
| 철도차량 | 0 | 180 | 137 | - | 7 | 알루미늄괴및스크랩 | 640 | 958 | 977 | 4.6% |
| 합성수지 | 147 | 129 | 136 | -1.4% | 8 | 기타금속광물 | 471 | 568 | 808 | 2.1% |
| 전기자동차 | 0 | 348 | 133 | - | 9 | 동광 | 619 | 979 | 546 | 5.2% |
| 화물자동차 | 72 | 157 | 120 | 9.0% | 10 | 곡류 | 418 | 496 | 389 | 1.9% |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1: MTI 4단위 기준

주2: 순위는 2024년 1~10월 누계 기준, 연평균 증감률은 2023년 기준

- FTA 체결 이후 천연가스(기존세율 3%→ 즉시 철폐) 수입이 크게 증가해, '22년 호주는 한국의 최대 천연가스 수입국⁸⁾이 되었으며 '23년 규모가 줄었음에도 1위를 차지

* 호주(1,042만 7825톤), 카타르(860만 95423톤), 말레이시아(612만 5971톤), 미국(511만 8181톤) 등⁸⁾

- '23년 수입이 급감한 데에는 국제유가 하락, 정부의 천연가스 도입 선 다변화, 호주 내 천연가스 부족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⁹⁾

<표4. 대세계·대호주 천연가스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 | | 2014년 (발효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1~10월 |
|----|---------------|-----------------|--------|--------|--------|--------|--------|--------|----------------|
| 전체 | 수입액 | 31,403 | 18,779 | 12,170 | 15,616 | 25,453 | 50,022 | 36,049 | 23,979 |
| | 증감률 (전년대비) | 2.5 | -40.2 | -35.2 | 28.3 | 62 | 96.5 | -27.9 | - |
| 호주 | 수입액 | 618 | 961 | 1,781 | 2,912 | 5,763 | 15,077 | 8,905 | 5,778 |
| | 증감률 (전년대비) | 37.2 | 55.4 | 85.4 | 63.5 | 90.5 | 161.6 | -40.9 | - |

자료: 한국무역협회

7) <https://oec.world/en/profile/bilateral-product/cars/reporter/aus>(2024.11.18.방문).

8) 최연수(2024.1.15.), “천연가스 도입량 4416만톤...수입액은 전년보다 28% 줄어”, 에너지신문.

9) 홍자상 외(2023), “2023년 수출입 평가 및 2024년 전망, TRADE FOCUS, 2023년 23호, KITA; 장의진(2021), “2034년까지 천연가스 수요 15% 증가...산업부 수입국 다변화”, 한국경제; 김우람(2022), “한국 가스 최대수입국 호주, 자국가스 부족에 수출제한하냐”, 이투데이.

II 한·호주 통상 관련 주요 협력 현황

1. 공급망 안정화

□ 한국은 호주와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고, 청정에너지 개발·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확대 중

- 호주는 첨단제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한국이 공급망 재편에 있어 협력해야 할 최우선 국가로 부상¹⁰⁾
 - 호주는 철광석, 납, 니켈, 우라늄 등의 세계 1위 보유국이자 흑탄, 코발트, 구리, 마그네사이트, 리튬 등 주요 원자재 보유량 세계 5위에 속하며, 망간, 희토류, 아연, 니켈 등의 세계 5대 생산국¹¹⁾(’21년 기준)
 - (한국) ’30년까지 전기차·이차전지·반도체 분야에서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 광물의 중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낮출 것을 목표¹²⁾
 - (호주) 전기차 수요 둔화·공급과잉으로 리튬과 니켈 가격·수출액 하락 등 영향을 받게 되자 ▲강력한 국제적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핵심 광물 가공에서의 독립적인 역량 개발, ▲핵심 광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도적 역할 달성 등을 목표¹³⁾
- 양국은 장관급 회의를 통해 청정수소에 대한 협력 강화를 약속(’23.7월)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파트너십을 구축
 - 한국은 ’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에너지원 확보가 필수적이며, 호주는 국내 수요를 초과하는 수소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어 낮은 생산단가로 대규모 수소 수출이 가능¹⁴⁾

* 미국과 중국은 호주보다 수소 생산 규모가 크나, 국내 수요도 상당하여 수출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¹⁵⁾

□ 양국은 정부 간 MOU, 광물안보파트너십, 국제에너지기구 등 양·다자협력 채널을 통해 핵심 광물·청정에너지 공급망의 확장과 협력 고도화를 추진

- ’21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핵심 광물·관련 제품에 대한 공급망 재편·회복력 강화, 사이버·핵심기술, 방산, 에너지 등에 대한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¹⁶⁾
- 양국은 FTA 10주년 회의에서 광물자원 및 에너지 관련 협력을 증대하기로 합의
 - 제6차 한·호주 FTA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강력하고 상호보완적인 에너지 및 자원 파트너임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24.9.3.)

10) 최인아 외(2022), “미중 경쟁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대응과 시사점: 호주의 대중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전략연구 21-11, KIEP.

11) 호주정부(2023), “Australia’s Identified Mineral Resources 2023”.

12) 산업부(2023.2.), “첨단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

13) 장미하(2024.6.13.), “탈세끼화 기로에 선 K무역, 호주와 한국은 상호보완적 관계...호주 광물, 한국 공급망 안정 도움 줄 것”, 조선비즈; 호주정부(2023.6), “Critical Minerals Strategy 2023-2030”.

14) 신민이(2023), “호주의 수소부문 국제협력 확대 요인과 시사점”, 세계경제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 Ibid.

16) 행정안전부(2021.12.13.),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공동 성명”.

- 한국은 서호주 州정부와 청정에너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및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

*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통한 교역 확대, 자원의 청정 가공, CCUS, 재생에너지 관련 인적·정보교류 등의 내용을 포함¹⁷⁾

2. 경제안보 · 신통상

□ 양국은 ‘경제안보대화’ 협의체 출범,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통해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여 글로벌 경제안보에서 역할을 강화¹⁸⁾

- 호주는 한국이 미국을 제외하고 외무장관과 2+2회의를 개최하는 유일한 국가*로 양국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에서의 핵심안보 이익 등을 공유¹⁹⁾

* 한국은 호주와 '13.7월 제1차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3년 영국과의 런던 정상회담에서 향후 2+2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

- (인도-태평양 전략) 인태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고, 유사 입장국으로서 양자·다자 측면에서 밀접하게 협력할 것을 약속
- (국방·방산) 자주포와 호주군 보병전투차량 사업에 한국기업이 진출하면서 양국 간의 방산 협력 관계가 심화되었으며, 합정 사업의 전략적 협력 방안 논의 및 획득기관 간 협력 고도화 합의, 국방 우주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등 국방·방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
- (한반도 정세)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와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 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하며, 불법 핵 개발 자금원 차단, 대북 메시지 발신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지역·글로벌 과제) 아세안과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이버, 에너지, 핵심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

□ 양국은 디지털 통상과 기후변화 등 신통상 분야에서도 협력을 모색하여, 새로운 통상환경 속 상호이익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 구축 기반을 마련

- (디지털) ▲WTO 전자상거래·아태지역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역내 디지털 교역 이니셔티브 수립을 위한 유사 입장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디지털 통상 관련 규범 설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을 논의·합의²⁰⁾
- (기후변화) ▲'35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청정에너지 전환·해운 분야 탈탄소화 등 양국 간 기후 협력, ▲태평양 지역 기후정책, ▲다양한 양자·다자 현안에 대해 논의²¹⁾

17) 산업통상자원부(2024.9.2.), “호주와 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 맞아 핵심광물·청정에너지 협력 한층 강화”, 산업부 보도자료.

18) 외교부(2024.7.30.), “한호주 외교장관회담(7.30)결과”, 외교부 보도자료.

19) 외교부(2024.5.1.),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개최”, 외교부 보도자료.

20) '21년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 '22년 한·호주 디지털 통상대화.

21) 외교부(2024.10.31.), “제1차 한-호주 기후변화대화 개최”, 외교부 보도자료.

III 평가 및 시사점

- 한·호주 FTA는 양국 간 무역 확대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시장과 공급망 확보의 기반을 제공
 - 협정 발효 10년간 한국은 교역 품목의 94.3%(수입액94.6%), 호주는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함에 따라 양국 간 무역증가에 기여
- 미중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경제안보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호주는 한국의 공급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국
 - 양국은 자원개발부터 생산까지 쉼 단계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첨단기술 연구, 식품·바이오 등에서의 협력을 통해 양국 간 교역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²²⁾
 - * 호주는 풍부한 업스트림 자원·재생에너지·핵심 광물을, 한국은 최첨단 제조 기술·생산 역량을 보유
 - 주요국의 자국중심주의 강화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서 기회 창출 및 리스크 완화에도 기여
 - 양국은 친환경·수소 부문에서 상호보완적인 정책*을 통해 협력할 수 있으며, 지정학적 리스크 측면에서도 신뢰할 수 있어 최적의 파트너로 평가
 - * 한국은 탄소중립을 위해 수소 사용 확대, 전기차·수소차·연료전지 산업육성, 친환경차 인프라 기술 확보 등에 주력하고, 호주는 수소 산업육성과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등을 추진²³⁾
 - 주요국의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양국 기업이 청정에너지, 국방·우주, AI·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연구개발 관련 정책 마련 등 지속적 지원이 필요²⁴⁾

22) 전국경제인연합회(2023.9.8.), “제44차 한-호주 경제협력 위원회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

23) 김남석 외(2023), “호주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호주 협력방안”,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3-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4) Ibid.